高麗時代 釋讀口訣의 'ㅱ/ㄹ'에 대한 考察

南 豊 鉉*

1. 序 言

高麗時代의 釋讀口訣資料가 근래에 와서 계속 발굴되어 이 자료를 통한 國語史硏究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현재 학계에 알려진 高麗時代의 釋讀口訣 資料는 「舊譯仁王經」上卷의 落張 5매(이하 '舊仁'), 「瑜伽師地論」卷20(이하 瑜伽)[1], 「新譯華嚴經」 卷14(이하 華嚴)[2], 「大方廣華嚴經疏」 卷35, 「金光明經」, 2行 남짓하지만 均如의 釋華嚴經敎分記이다. 이 가운데 「舊譯仁王經」, 「瑜伽師地論」, 「新譯華嚴經」은 풍부한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大方廣華嚴經疏」와 「金光明經」은 口訣硏究會에서 南權熙교수에 의하여 소개만 되었을 뿐 아직 未公開이다.

현재 舊仁은 12세기 중엽의 자료로, 華嚴은 12세기 후반이나 13세기초의 자료로, 瑜伽는 13세기 후반의 자료로 보고 있다. 자료의 시기는 추정된 것이어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마다 문자체계나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이것이 바로 언어상의 시대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瑜伽는 13세기 후반의 자료로서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그 언어가 반드시 13세기 후반의 언어라고

* 檀國大

1) 拙稿(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延世大國學硏究院, 참조.

2) 拙稿(1994), 「新譯華嚴經」卷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國文學論集」 14, 檀國大國文科. 참조. 이 자료는 생략표기가 많고 토의 위치나 字形에 있어 오류가 있으므로 原典批判을 거쳐 이용해야 될 것이다. 현재는 이용상 각별한 조심이 요망된다.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 하면 이 구결이 같은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朴東燮本 楞嚴經의 順讀口訣과는 현저하게 다른 古形의 문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釋讀口訣은 시대적인 변화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강한 文語의 保守性을 지니고 있어 구결의 형성연대가 곧 언어의 연대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하여 瑜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현상이 舊仁이나 華嚴의 언어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舊仁과 華嚴의 관계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華嚴에만 나타나는 형태가 舊仁의 것보다 先代의 것일 수 있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세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는 均如의 鄕歌 이후 12세기 후반과 13세기 후반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되 이보다도 더 오래된 언어현상이나 독법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는 발굴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새로운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래 舊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이 방면의 연구자들을 고무시켜 주지만 아직은 그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차분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정리의 일환으로 이들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ㄕ/ㄹ'의 쓰임에 대하여 고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ㄕ/ㄹ'은 주로 動名詞語尾로 쓰여 15세기국어의 '-ㄹ' 또는 '-ㅭ'에 계승되는 것이다.[3] 이는 같은 流音 계통인 'ㄥ/ㄹ'과 구별되는데 동명사어미로 쓰이는 'ㄕ'에 대하여 'ㄥ'은 주로 대격조사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당시에 l음과 r음을 구별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기서는 더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ㄕ의 음도 편의상 'ㄹ'로 나타낸다.

---

3) 이 동명사어미는 일찌기 '金完鎭(1957), -n, -l 動名詞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國語硏究」 2, 國語硏究會'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논하였다. 이 글은 이 논의를 이어 새로운 자료에 의한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게 될 것이지만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나오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ㅱ'이 15세기의 'ㅸ'에 계승된다 하더라도 15세기의 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많은 文法的 특징들을 보여 주므로 이 차이점에 대한 세밀한 記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부분적으로는 논급이 되긴 하였어도 전반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차자를 분포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능과 의미를 밝히되 ㅱ의 기능 전반을 밝히려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2. 동명사어미 '-ㅱ/ㄹ'의 고찰

'ㅱ/ㄹ'이 동명사 어미라는 사실은 이 어미의 뒤에 格助詞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1-1.ㄱ) 有无罪ㅅ ……諸緣生法ㅅㄴㅱㄴ 開示ㅿ / 有无罪와 …… 諸緣生法이라고 하는 것들을 開示하고<瑜伽2,23-3,5>[4]

ㄴ) 方廣ㅅ 希法ㅅ 及 與ㅌ 論議ㅅㄴㅱㄴ 分別ㅿㅋㅿㄴㅱㅊㅣ / 方廣과 希法과 함께 論議라고 하는 것들을 分別하고 하시는 것이다. <瑜伽2,23-3,5>

ㄷ) 敎誡ㅅ 敎授ㅅㄴㅱㄴ 說ㄴㅱㅅㅣ 得ㅿㅅㅣ / 敎誡와 敎授라고 하는 것들을 說할 것을 얻으며 <瑜伽3,5-,11>

ㄹ) 若 十地ㅣ 十自在ㅣㄴㅱㄴ 獲ㅣㅸ / 만약 十地와 十自在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서<華嚴13,21-24>

---

4) 예문은 漢文을 토가 지시한 대로 우리말의 순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이 15세기의 언해문과 유사한 성격을 띠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문 다음에는 빗금을 긋고 그 예문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해석은 당시의 어법을 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직역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어로 직역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역도 하였다. 당시의 語法이 분명히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해석이므로 이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다. 예문의 출전은 < > 속에 文獻의 略稱, 張次, 行數의 순서로 표시한다. 일례로 <瑜伽2,23-3,5>는 瑜伽師地論 卷20의 2張 23行에서 3張의 5行사이에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華嚴13,21-,24>은 大方廣華嚴經 卷14의 13장 21행에서 24행 사이에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ㄱ)~ㄹ)에 쓰인 'ㅅㅣㄹ/여 홀ᄋᆞᆯ'이 동명사어미 'ㅣ/ㄹ'이 쓰인 토이다. 'ㅅ/여'는 접속조사로 명사구들을 열거하는 구실을 한다. 'ㅣ/호'는 동사어간 'ᄒᆞ-'와 의도법어미 '-오-'가 축약된 형태이다. 'ㄹ/ᄋᆞᆯ'은 대격조사이다. 瑜伽와 華嚴에서 동명사어미와 대격조사가 연결된 형태는 명사구를 열거하는 조사 'ㅅ' 뒤에만 쓰인 것이 나타난다. 이는 이 釋讀口訣에서 동명사어미 'ㅣ'이 15세기 국어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ㅅ/여'는 현대국어로는 조사 '-과'로 해석되지만 열거되는 끝 句 'ㅅㅣㄹ'은 현대국어의 표현법에 따라 '…이라고 하는 것들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직역을 하지 않았다. 'ㅣㄹ/홀ᄋᆞᆯ'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지만 사물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들'을 넣어 해석한 것이다. '-ㅣ/ㄹ'은 觀念形語尾로 時間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眞理的 事實을 나타내므로 'ㅅㅣㄹ'을 '하는 것들을'로 해석하였다.

舊仁에는 이 형태가 'ᄉᆞㅣㄴ'로 나타나고 ㅣ 다음에 대격조사가 연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ㅁ) 天王問般若波羅蜜ᄉᆞ 光讚般若波羅蜜ᄉᆞㅣㄴ 說ᄒᆞᄉᆞᄫᆞ니/ 天王問般若波羅蜜과 光讚般若波羅蜜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하였다.
<舊仁2,19-,23>

ㅁ)의 'ᄉᆞㅣㄴ'은 ㄱ)~ㄹ)의 'ㅅㅣㄹ'과 같이 사물을 열거한 뒤에 쓰이어 ㅣ이 빠진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ᄉᆞㅣ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ㅣ'의 표기를 생략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ㄴ'이 'ᄅᆞᆯ'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로 보면 'ᄉᆞㅣㄴ'은 '여 홀ᄋᆞᆯ'을 표기한 것이 되고 후자로 보면 '여 호ᄅᆞᆯ'을 표기한 것이 되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형태의 표기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예로 보아 생략된 표기임을 확인하게 된다.

1-2,ㄱ) 是ㄴ…… 心一境性ㄴ 證得ㅅㅣㄹᄃᆞ[之] 所對治ㅅㅣᄒᆞ니/ 이것을 …… 心一境性을 證得하는 것에의 所對治라고 하는 것이다.<瑜伽14,11-,17>

ㄱ)의 밑줄친 'ㅅㅁㅋㅌ'는 '홀잇'으로 읽힌다. 'ㅅㅁ/홀'의 'ㅁ/ㄹ'이 동명사 어미이고 'ㅋ/이'는 처격조사, 'ㅌ/ㅅ'은 속격조사이다. 이를 직역하여 'ㅅㅁㅋㅌ/홀잇'을 '하는 것에의'라고 하였으나 현대어로는 동사의 관형사형 '하는' 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舊仁에서는 동명사어미의 표기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토가 쓰였다.

1-3,ㄱ) 毗舍ㅣ 首陀ㅣㅅㅋ 神我等ㅅㄱ 色心ㄴ 名ㅋ… / 毗舍와 首陀라고 하는 것의 神我와 같은 色心을 이름하여…<舊仁14,1-,4>

밑줄친 'ㅣㅅㅋ'는 '여 홀이'로 읽히는 것으로 동명사어미 ㅁ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1-1,ㅁ)의 'ㅣㅅㄴ'의 'ㄴ'은 '(ㅇ)ㄹ'로도 읽을 수 있고 'ㄹ'로도 읽을 수 있으나 이 토의 ㅋ는 '이/의'로밖에는 읽을 수 없어 ㅁ의 표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1,ㅁ)도 ㅁ이 생략된 표기로 보게 되는 것이다. 'ㅣㅅㅋ/여 홀이'의 'ㅣ/여'는 열거의 접속조사이고 'ㅋ/이'는 유정물체언의 속격조사이다. 현재까지의 석독구결에서 비록 생략되긴 하였어도 동명사어미 ㅁ에 속격조사가 직접 연결된 예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ㄴ) 地ㅣ 及ㅅ 虛空ㅣㅅㅋㅓ 大衆ㅐ 而ㅱ 住ㅅㅂㅅㄱㅣ/ 땅과 및 虛空이라고 하는 것들에 大衆이 住하고 있다.<舊仁3,13-,15>

'ㅣㅅㅋㅓ/여 홀이긔' 역시 동명사어미 ㅁ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ㅋㅓ/이긔'는 두 처격조사 'ㅋ/이'와 'ㅓ/긔'가 중복된 복합조사이다. 動名詞語尾 ㅁ과 처격조사 'ㅋㅓ/이긔'의 결합 예도 현재까지의 석독구결에선 유일한 것이다.

1-4,ㄱ) 其心ㄴ 擾亂ㅅㅁㅅ … 身不調適ㅅㅁㅅ… 奢摩他定ㄴ 樂ㅁ 不多ㅅㅁㅅ … 實 [如]ㅈ 諸法ㄴ 觀察 能 不ㅅㅅㅁㅅㅐㅣ / 其心을 擾亂하는 것과 … 身不調適하는 것과… 奢摩他定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과… 實과 같이 諸法을 觀察하기가 能하지 아니한 것과입니다.<瑜伽10,4-,12>

ㄴ) 諸 歡喜事ㄴ 作意思惟ㅅㅁㅅ 若 得ㅅㄱ 所ㄴ 如ㅅㅂㅅㄱ 道ㄴ 修習ㅅ

尸ㅅ 若 極淸淨道ㅗ 及 果功德ㅗㅅ尸ㄴ 證得ㅅ尸ㅅㅅ尸 是 [如]ㅊㅅㄱㄴ 名下 [爲]出世間 一切種淸淨ㅗㅅㅔㅣ/ 여러 歡喜事를 作意思惟하는 것과 혹 얻은 바와 같은 道를 修習하는 것과 혹 極淸淨道와 및 果功德이라고 하는 것을 證得하는 것 등 이 같은 것을 이름하여 出世間 一切種의 淸淨이라고 하는 것이다.<瑜伽31,18-,23>

'ㅅ尸ㅅ'는 '홀과'로 읽히는 것으로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공동격(접속)조사 'ㅅ/과'가 연결된 것이다. 이 예는 瑜伽에 몇 예가 더 나타난다.

1-5,ㄱ) 又 煩惱道ㅗ 後有業道ㅗㅅ尸ㄱ [於]現法ㅊ 中ㅋㅓ 已ㅑ 永ㅋ 斷絶ㅅㅎ / 또 煩惱道와 後有業道라고 하는 것들은 現法 中에 이미 길이 斷絶하고<瑜伽31,15-,16>

'ㅗㅅ尸ㄱ/여 홀온'은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주제의 보조조사 'ㄱ/(으)ㄴ'이 연결된 것이다. 예가 극히 드물어 이 한 예가 확인될 뿐이다.

1-6,ㄱ) 或ㅅㄱ 如來ㄴ 供養ㅅ白ㅁㅇㅊ 門ㄴ 以ㅋㅅ尸ㅏㅅㅇ 或ㅅㄱ 難思ㅊ 布施門ㄴ 以ㅋㅅ尸ㅏㅅㅇ / 혹은 如來를 供養하옵는 것의 門으로써 하기도 하며 혹은 難思의 布施門으로써 하기도 하며<華嚴17,4-10>

ㄴ) 或ㅅㄱ 邊呪語ㅱ 四諦ㄴ 說尸ㅏㅅㅇ 或ㅅㄱ 善密語ㅱ 四諦ㄴ 說尸ㅏㅅㅇ / 혹은 邊呪語로 四諦를 이르기도 하며 혹은 善密語로 四諦를 이르기도 하며<華嚴20,8-,11>

ㄷ) 作樂ㅅ尸ㅏ 亦ㅅㄱ 然ㅊㅅㄷ下 / 作樂하는 이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 <舊仁3,9-,14>

이 예들은 동명사어미 '-尸/ㄹ' 다음에 보조조사 'ㅏ/도'가 연결된 것이다. 舊仁에선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조사가 연결되면 尸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한 예가 생략되지 않아 이 문헌에서 조사 앞에 尸이 쓰인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대격, 속격, 처격조사와 접속조사,

보조조사가 연결된 예를 보아 왔다. 이는 이 시대엔 동명사어미 ㅁ의 쓰임이 15세기에 비하면 훨씬 생산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법 전반에서 보면 한정된 범위에 쓰이고 있어서 이 동명사어미가 쇠퇴의 길에 접어 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일례로 동명사어미 ㅁ 다음에 주격조사 'ㅣ/이'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ㅁ + ㅣ'가 'ᄉᆞ/리'로 축약된 데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7,ㄱ) … 十恒沙ㅅ 鬼神王ㅣ [乃ㅣ] 至ㅣ 三趣ㅅ子ㅣᄉᆞᆫᄉᆞ 有ㅅᄂᆞㄱㅣ / … 十恒沙의 鬼神王과 乃至는 三趣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니와 <舊仁11,14-,18>

'三趣ㅅ子ㅣᄉᆞᆫᄉᆞ'의 'ᄉᆞᆫᄉᆞ/호리'는 '有ㅅᄂᆞㄱㅣ/잇건여'의 주어가 되므로 동명사어미와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이를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또는 접미사)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게 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ㄴ) 國土ㄴ 護ᄉᆞᆫㅅ 因緣ㄴ… / 國土를 護할 바의 因緣을… <舊仁3,17-,18>
ㄷ) 色ㅣ 如ㅣᄉᆞᆫᄉᆞㅅ 受相行識ㅣ 如ㅣᄉᆞᆫᄉᆞㅅ / 色과 如하다고 하는 이와 受相行識과 如하다고 하는 이와<舊仁3,23-,25>
ㄹ) 幻法ㅣ 幻化ㅣᄉᆞᆫᄀᆞ 名字 無ㅅᄒᆞ / 幻法과 幻化라고 하는 것은 名字 없고<舊仁14,1-,4>
ㅁ) 十八梵天ㅣ 六欲ㅅ 諸ㄱ 天ㅣᄉᆞᆫᄀᆞ / 十八梵天과 六欲의 모든 天이라고 하는 이도<舊仁3,4-,8>

여기서의 ᄉᆞᆫ는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또는 접미사) '이'의 결합이 분명한 것이어서 ㄱ)의 ᄉᆞ를 동명사어미와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 석독구결들에선 이 'ᄉᆞ'나 'ᄒᆞ/리'가 ㅁ보다 더 많이 쓰이어 ㅁ동명사어미가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동명사어미 ㅁ 다음에 올 조사가 생략된 예들이다.

2-1,ㄱ) 菩薩地ᄋᆞᆫ 當ㅎ 說白ノ尸 [如]ᄒᆞᄂᆞᆫ ᄀᆞᆮᄒᆞᆫ 丁/ 菩薩地에 반드시 이르옵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瑜伽4,8-10>

ㄴ) 一ㄱ 塵ㄴ 中ᄋᆞᆫ 示現ノㄱ 所ᄒᆞᄂᆞᆫ尸 [如]ᄒᆞ / 한 티끌 가운데에 示現한 바를 하는 것과 같이<華嚴15,13-,15>

ㄷ) 菩薩ㅣ 衆生ᄋᆞᆯ 化ノ尸 [爲]此 [若]ㅣᄂᆞᆫᄃᆞ / 菩薩이 衆生을 敎化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시어<舊仁14,13-,16>

이는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현대어의 '같(如)-'에 해당하는 '[如]ᄒᆞᄂᆞᆫ/다ᄒᆞ-'가 온 예이다. 이 '[如]ᄒᆞᄂᆞᆫ'는 15세기국어의 예로 보아 주격(비교격)이나 공동격을 지배할 것인데 그 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如]ᄒᆞᄂᆞᆫ'가 不定格을 지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ㄱ) 一切 世間ᄋᆞᆫ 諸ㄱ 天ᄋᆞ 魔ᄋᆞ…… 阿修羅ᄋᆞᄂᆞᆫ尸 [等]ㅣᄂᆞᆫᄀᆞᆮᄒᆞᆫᄋᆞ / 一切 世間의 모든 天과 魔와 …… 阿修羅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것이다. <華嚴8,16-,18>

ㄴ) 苦ᄋᆞ 樂ᄋᆞ 利ᄋᆞ 衰ᄋᆞᄂᆞᆫ尸 [等]ㅣᄂᆞᆫᄀᆞ… 法ᄋᆞᆫ / 苦와 樂과 利와 衰라고 하는 것들과 같은 … 法에<華嚴18,8-,11>

ㄷ) 居士ㅣᄂᆞᆫ尸 寶ᄋᆞ 蓋ᄋᆞ 法ᄋᆞ 淨名ᄋᆞᄂᆞᆫ尸 等ᄂᆞᆫᄀᆞ 八百人ᄃᆞᄫᆞᆫ / 居士이신 寶와 蓋와 法과 淨名이라고 하는 것들과 같은 八百人에게 <舊仁2,24-3,3>

한문에서는 사물을 열거하고는 '等'으로 그것을 총괄한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이 等자를 접미사 '-듣'로 번역하였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이 等자를 용언으로 보아 '[等]ㅣᄂᆞᆫ/다ᄒᆞ-'로 訓讀하였다. '[等]ㅣᄂᆞᆫ-'와 '[如]ᄒᆞᄂᆞᆫ-'는 국어로서는 형태, 의미, 기능이 일치하는 용언으로 격표지를 보여 주지 않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添言할 것은 이 '等'의 석독표시를 華嚴에서는 '[等]ㅣᄂᆞᆫ-'로 하여 全訓讀을 표시하였는데 舊仁에선 예 ㄷ)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접미사 'ᄂᆞᆫ/ᄒᆞ-'만을 기입하여 '等ᄂᆞᆫ-'로 한 점이다.

2-3,ㄱ) [於]諸定ㅅ十 隨ㅎ 愛味ㄴㅁ [有]ㅐ分 / 여러 定에 따라서 愛味함을 두며<瑜伽9,11-,18>

ㄴ) 疑ㅣ 隨逐ㄴㅁ 有七分 / 疑心이 隨逐함이 있으며<瑜伽11,14-,21>

ㄷ) 又 [於]廣大ㅅㄱ 淨天生七 處ㅅ十 沈沒ㄴㅁ 无有分/ 또 廣大한 淨天生의 곳에 沈沒함이 있지 않으며<瑜伽15,14-,17>

15세기엔 有자의 訓이 주로 '잇-'이었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有]ㅐ/두-'와 '有七/잇-'의 두 훈이 나타나는데 '두-'로 훈독되는 경우가 더 많다. 후대의 문법에선 '두-'는 대격을 지배하고 '잇-'은 주격을 지배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不定格으로 나타난다. ㄷ)의 无有는 한자어이지만 기능상 존재동사로 보았다. 无자만으로는 否定辭이다.

2-4,ㄱ) 樹ㅣ 葉茂ㅅㄱㄴ 見 當願衆生 定ㅈ 解脫ㅈㅅ令ㄴ 以ㅋㅅ 而ㅱ 蔭映ㄴㅁ 爲ㅈㅌ호 /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定과 解脫이라고 하는 것들로써 蔭映하는 것을 삼을지어다.
<華嚴5,9-,12>

'蔭映ㄴㅁ'이 동명사구로 '그림자를 만들음'의 뜻이다. '爲ㅈㅌ호/삼ᄂᆞ서'의 'ㅈ'자는 '三/삼'자의 오기로 보았다.[5] 이 '爲ㅈ/삼-'은 대격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조사가 생략되었다.

2-5,ㄱ) 大師ㅣ 善分 爲ㅎ 俗正法ㄴ 開示ㅁ 已ㅈㅅㅇㅁㅅ / 大師가 善하게 (그를) 위하여 俗正法을 開示하기를 이미 하고서<瑜伽3,5-,11>

ㄴ) 聖諦現觀ㅅ十 入ㅁ 已ㅈㅅㅋ斤 / 聖諦現觀에 들기를 이미 하거늘
<瑜伽28,9-,15>

ㄷ) 大功德ㄴ 說ㅁ 已ㅈㅅㅇㅁ / 大功德을 이르기를 이미 하고
<華嚴8,20-,24>

ㄹ) 彼ㄴ 見ㅣㅁ 已ㅈㅅㅇㅁ 皆七 調伏 令ㅣㅁㅌ분 / 저이에게 보이기를 이미 하고 모두 調伏시키며<華嚴20,4-,7>

---

5) 이 견해는 口訣學會의 月例 講讀會에서 논의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고려시대의 佛家에선 '已ᄒᆞᆫ/이믜사(셔) ᄒᆞ-(이미 끝내다)'가 동명사어미 -ㄷ을 지배하는 표현이 慣用化되어 있었던 듯 위와 같은 표현이 瑜伽와 華嚴에 이밖에도 더 나타난다. 현대어로는 동명사어미 다음에 대격이 나타나야 할 자리이지만 격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不定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동명사어미와 격의 관계를 마치고 다음은 ㄷ동명사형이 체언을 수식하는 예들을 보기로 한다.

3-1,ㄱ) 思擇力ᄆᆞᆷ 攝ᄒᆞᆫ ᄃᆞᆫ 不淨想ᄋᆞᆯ 中ᄒᆞ+ / 思擇力으로 攝하는 不淨想 가운데에<瑜伽9,19-,21>

ㄴ) 此ᄅᆡ 三界ᄋᆞᆯ 中ᄒᆞ야 衆ᄉᆞᆫ ᄃᆞᆫ 十二大衆ᄀᆡ/ 이 三界 中에 있는 衆이라고 하는 十二大衆은<舊仁2,7-,9>

ㄷ) 舍衛國主ᄅᆡᄉᆞᆫ ᄃᆞᆫ 波斯匿王ᄅᆡ / 舍衛國主이신 波斯匿王이 <舊仁2,24-3,3>

이들은 ㄷ동명사가 뒤에 이어지는 체언을 수식하는 예들이다. 이 修飾構造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국어의 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표현법이 굳어져 ㄷ동명사는 冠形語로 발달하고 '-ㄷ/ㄹ'어미는 관형형어미로 발달한다. 이석독구결들에선 ㄷ동명사가 격조사를 취하여 동명사어미로 쓰이고 있고 그 사용빈도도 높으므로 관형형어미로 보지 않고 동명사어미로 본 것이다.

이 동명사어미는 의존명사를 수식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만들어 낸다.

3-2,ㄱ) 對治ᄉᆞᆫ ᄃᆞᆫ 所ᄋᆞᆯ 法 有ᄉᆞᄀᆞᄅᆡᄀᆞᄃᆞ / 對治할 바의 法이 있다는 것을 <瑜伽8,1-,4>

ㄴ) 恭敬ᄉᆞᄒᆞᆷ 供養ᄉᆞᄒᆞᆷᄉᆞᆫ ᄃᆞᆫ 所ᄂᆞ 得ᄀᆞ / 恭敬하며 供養하며 하는 바를 얻으며<華嚴2,3-9>

ㄷ) 見ᄅᆞᆫ ᄃᆞᆫ 所ᄒᆞ 無ᄒᆞᄉᆞᄀᆞ / 보는 바 없으시며<舊仁15,15-,18>

所는 '바'로 훈독된다. '바'는 장소를 나타내는 자립명사였을 것이지만 이

시대에도 이미 의존명사로 문법화되어 추상적인 뜻을 나타낸다.

ㅁ동명사는 의존명사 'ᄃᆞ'를 수식하는 예가 많은데 이 'ᄃᆞ'의 곡용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표현이 발달하였다.

3-3,ㄱ) 彼 補特迦羅ㅣ 佛ㅣ 出世ㅅ白ㅅᄃᆞᆷ入ㄴ 値白ᄉᆞᆫ / 저 補特迦羅가 佛이 出世하시는 것을 만나오며<瑜伽2,23-3,5>

ㄴ) 心ᄋᆞᆯ 解脫ㅅᄃᆞᆷ入ㄴ 得ᄒᆞᆸ立 / 마음에 解脫하는 것을 얻을지어다. <華嚴3,3-,7>

ㄷ) 皆ᄒᆞ 無ㅅᄀᆞᄫᆞᆯᄒᆞᄒᆞ ㅅᄃᆞᆷ이ㄴ 名ᄋᆞᆯ [爲]諸佛ᄒᆞ 觀ᄉᆞㅅᄒᆞᄫᆞᆫᄀᆞ / 다 無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름하여 諸佛의 觀이라고 하는 것이며 <舊仁15,8-,10>

`ㅅᄃᆞᆷ入ㄴ/홀 ᄃᆞᆯ'은 ㅁ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入/ᄃᆞ'가 대격으로 쓰인 것이다. 이 'ᄃᆞ'는 이들 석독구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의존명사인데 'ㅣㅅ/다ᄒᆞ-(如)'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믿어진다. 그 의미는 '꼭 같은 것', '틀림없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이 해석되어 현대국어의 '것'보다는 강조의 뜻이 강한 의존명사이다. 이에 대립되는 의존명사는 'ᄉᆞ'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중립적 의미를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ㅅᄃᆞᆷ入ㄴ'은 '…하는 바로 그것을'로 해석되어 'ᄃᆞ'의 기본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형태이다.

이 형태가 특수한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 다음의 '-ㅣᄃᆞᆷ ㅅㄴ ㅅ-/-일 ᄃᆞᆯ ᄒᆞ-'이다.

ㄹ) 當ㅅ 知ᄆᆞᆨㅣ 七法ㅣ 所對治ㅣᄃᆞᆷ [爲]ㅅㄴㅅᄒᆞㅣᄀᆞᆫ丁 / 반드시 알아야 한다. 七法이 所對治가 되는 것임을.<瑜伽10,2-,12>

ㅁ) 若 [於]王ㄴ 見 當願衆生 得ᄋᆞᄒᆞ 法王ㅣᄃᆞᆷ [爲]ㅅㄴㅅᄋᆞᆺ 正法ㄴ 恒轉ㅅᄒᆞᆸ立 / 만약 王을 본다면 반드시 願하기를 衆生은 法王될 수 있도록 正法을 恒轉하여지이다.<華嚴6,19-,24>

ㅂ) [是]ㅣ 月光王ㄱ……四住ㄴ 開士ㅣᄃᆞᆷ [爲]ㅇㄴㅅㅣㄴᄀᆞㄴ 我ㄱ 八住ㄴ 菩薩ㅣᄃᆞᆷ [爲]ㅇㄴㅅㅣㅅ白ㄹᄀᆞㅇᄆᆞ / 이 月光王은…… 四住의 開士가 되었었거늘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사옵기로<舊仁11,20-,22>

이 釋讀口訣들에선 '-ㅣ尸 ㅅㄴ ㅅ-/-일 ᄃᆞᆯ ᄒᆞ-'가 '-이(주격) 되다'의 뜻으로 널리 쓰였다. 당시에는 '되다'라는 동사가 없었던듯 이 '-ㅣ尸 ㅅㄴ ㅅ-/-일 ᄃᆞᆯ ᄒᆞ-'가 그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로 쓰였다. 이 구성에서의 'ㅅ/ᄃᆞ'는 '바로 그것' 또는 '틀림 없는 그것'의 뜻으로 '명사+ -ㅣ尸/일'에 쓰인 명사와 동일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NP_1은 NP_2인 바로 그것(ᄃᆞ)임'이므로 'NP_2인 바로 그것임'이 현대국어로는 '되다'의 뜻이 되는 것이다. 'ㅅ-'는 'NP_2인 바로 그것임'의 구를 용언화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이는 15세기의 동사 'ᄃᆞ뷔-(> ᄃᆞ외-)'가 고려시대 중반 이후에 造語된 단어일 것임을 말하여 준다. 위의 ㄹ)~ㅂ)에서는 爲자가 不讀字로 쓰였다. 이로 인하여 '-ㅣ尸'과 'ㅅㄴ' 사이에 爲자의 훈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爲자가 없이 '-ㅣ尸 ㅅㄴ ㅅ-'가 쓰였으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한다.

ㅅ) 信ㄱ…… 憍慢ᄒᆞ 滅除ᄒᆞ오 恭敬ᄒᆞᄉᆞᄫᆞᄆᆞ 本ㅣ尸ㅅㄴᄒᆞᄂᆞᆫᄀᆞㅣᄀᆞᆫ / 信은 …… 憍慢을 滅除하고 恭敬하는 本이 되는 것이며<華嚴9,24-10,3>

ㅇ) 歌舞ᄒᆞᄒᆞ 談說ᄒᆞᄒᆞᄂᆞᆫᄃᆞᆷ 衆 欣ᄂᆞᆫ 所ㅣ尸ㅅㄴᄒᆞᄂᆞᆫᄀᆞᆫ / 歌舞하며 談說하며 하되 모두가 즐길바가 되며<華嚴19,4-7>

이 예들은 華嚴에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예가 한정된 감이 있지만 '-ㅣ尸 ㅅㄴ ㅅ-'라는 어형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임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어서 가치가 있다.

華嚴에는 '-ㅣ尸 ㅅㄴ ㅅ-'의 'ㅅㄴ'을 'ㅅㄱ'으로 표현한 듯한 예가 나타난다.

ㅈ) 諸ㄱ 佛矣 護念ᄒᆞᄆᆞᆫᄆᆞ尸 所ㅣ尸 [爲]ㅅㄱᄒᆞᄂᆞᆫᄃᆞᆫᄀᆞᆫ / 모든 부처의 護念하시을 바가 되는 것이며<華嚴11,1-,4>

의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구는 이 구의 내용을 받아서 전제로 삼고 있는데

ㅊ) 若 諸ㄱ 佛矣 護念ㅅ勿ㅁ 所ㅣㅁ [爲]ㅅᄂᆞᆫᄃᆞᆫㅅㄱ / 만약 모든 부처의 護念하시는 바가 된다면<華嚴11,1-,4>

과 같이 'ㅅᄂᆞ'로 되어 있다. 이로 보면 ㅈ)의 'ㅅㄱ'은 'ㅅᄂᆞ'의 誤記임을 알 수 있다. 華嚴에는 간혹 이러한 誤記가 있으므로 이용상 주의를 요한다.

ㅌ) 諸ㄱ 佛矣 所憶念ㅅ勿ㅁ [爲]ㅅᄂᆞᆫᄃᆞᆫᄒᆞᆫᄃᆞ / 모든 부처의 所憶念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며<華嚴12,17-20>

ㅍ) 或ㅅㄱ 良藥ᄉᆞ 衆ㄱ 寶藏ᄉᆞ ᄂᆞᆼᄒᆞᆫㅁ [爲]ㅅᄂᆞᆫᄉᆞᆫᄃᆞ / 혹은 良藥과 많은 寶藏과 하는 것들이 되며<華嚴19,8-,11>

이 예들은 '-ㅣㅁ ㅅᄂᆞ ㅅ-'가 문맥에 따라서는 'ㅅㅁ ㅅᄂᆞ ㅅ-/ᄒᆞᆯ ᄃᆞᆯ ᄒᆞ-'로 쓰여도 '되다'의 뜻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ㅎ) 或 國王ᄉᆞ 及ㅌ 大臣ㅣㅁ [爲]ㅅᄂᆞᆫᄃᆞᆫᄃᆞ 或ㅅㄱ 良醫ㅣㅁㅅᄂᆞᆫ 作ㅅᄀᆞᄉᆞ 衆ㄱ 論ᄂᆞ 善ᄉᆞᆫㅅᄃᆞ 或ㅅㄱ [於]曠野ᄀᆞᆫ 大樹ㅣㅁㅅᄂᆞᆫ 作ㅅᄃᆞᆫᄃᆞ 或ㅅㄱ 良藥ᄉᆞ 衆ㄱ 寶藏ᄉᆞᆫㅁ [爲]ㅅᄂᆞᆫᄉᆞᆫᄃᆞ 或ㅅㄱ 寶珠ㅣㅁㅅᄂᆞᆫ 作ㅅᄀᆞᄉᆞ / 혹 國王과 및 大臣이 되며 혹 良醫가 되어서 많은 論을 잘하며 혹은 曠野에 大樹가 되며 혹은 良藥과 많은 寶藏과 하는 것이 되며 혹은 寶珠가 되어서<華嚴19,8-11>

이는 '-ㅣㅁ ㅅᄂᆞ ㅅ-', 'ㅅㅁ ㅅᄂᆞ ㅅ-'와 아울러 '-ㅣㅁ ㅅᄂᆞ 作ㅅ-'도 '되다'의 뜻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서 觀念形인 '-ㅁ'과 '同'의 뜻인 의존명사 'ㅅ/ᄃᆞ'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다음은 '-ㅁ ㅅ/ㄹ ᄃᆞ'가 因果關係 표현에 쓰이는 예이다.

3-4,ㄱ) 樂ㅎ 正法ᄂᆞ 聞ㅏㅁㅅᄇᆞ 故ㅣ [於]時時ㅌ 中ᄀᆞ 慇懃 請問ᄉᆞᆫ / 즐겨 正法을 들으므로 그때그때에 慇懃히 請問하며<瑜伽15,21-16,1>

ㄴ) 菩提心ㅌ 功德ᄂᆞ 顯示ㅅ [欲]ㅅᄉᆞᆫㅁㅅᄇᆞ 故ᄉᆞ 偈ᄂᆞ 以ᄀᆞ … 問ᄀᆞ

曰ニ尸 / 菩提心의 功德을 顯示하고자 하시므로 偈로써 … 물어 이르시되<華嚴8,20-,24>

ㄷ) 佛佛ㅣ [於]世十 出現ソニ下 衆生し 爲ㅅソニ尸のᄆ 故ノ / 佛佛이 世에 出現하시어 衆生을 爲하고자 하시므로<舊仁14,4-,7>

이들은 尸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ㅅ/ᄃ'에 조격조사 'ᄆ/로'가 연결된 것이다. 이 형태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석독구결에선 因果關係 表現에 쓰여 原因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굳어졌다. 이는 아마도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吏讀文에선 이와 일치하는 '等以/ᄃ로'가 쓰였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의 順讀口訣에선 'ᄃ로'의 쓰임은 줄어들고 주로 'ソᄉ丁大/ᄒ란대'가 쓰였다. 高麗歌謠에도 'ᄒ란대'의 형태가 쓰이는 것을 보면 고려 후기에는 'ᄃ로'가 'ᄒ란대'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15세기 諺解文獻에선 '홀씨'로 교체되었다. 우리는 이로써 인과관계 표현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ㅅᄆ/ᄃ로'와 吏讀의 '等以/ᄃ로' 형이 고형에 속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3-5,ㄱ) 廣ㅣ 說尸ㅅ丁 當ㅅ 知ㄱㅣ 二十種 有セ丁ㅗ / 넓게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二十種이 있다는 것을.<瑜伽4,8-10>

ㄴ) 若セ 諸丁 菩薩ㅣ 善ㅊ 其 心し 用ソヒ尸ㅅ丁 則ㅊ 一切勝妙功德し 獲ヒチ皿 / 만약 모든 菩薩이 善하게 그 마음을 쓴다면 一切勝妙功德을 얻을 것이다.<華嚴2,12-,17>

ㄷ) 若セ 言ニ尸 無セ丨ソニロチ尸のㄱ[者] 智丁 二ㅣㅎ [應]セソ丁 不矢ㅣロしか / 만약 이르시기를 없다 하실 것 같으면 智는 틀림없이 둘임이 아닌 것이며<舊仁14,18-,20>

이 '-尸 ㅅ丁/(으)ㄹ 든'은 의존명사 'ᄃ'에 주제화첨사 '(으)ㄴ'이 결합된 것인데 이것이 조건법(가정법) 표현으로 발달하여 문맥상 '하면'으로 번역된다. 15세기에는 '-거든', '-면'과 같은 형태가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하였지만 석독구결에선 이 '-尸 ㅅ丁/(으)ㄹ 든'이 그 표현을 하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

(으)ㄴ'만으로도 그 표현을 하여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에선

若 大小便爲哉 若 臥宿哉 若 食喫哉 爲者 香水 用ᄉᆞ 沐浴令只但 / 만약 大小便을 하거나 누워 자거나 먹고 마시거나 하면 香水를 써서 沐浴시키어야

의 '爲者'가 조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者는 '-ㄴ'을 표기한 것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데에 주로 쓰인 보조조사였다.[6] '-ㅁ ㅅㄱ/-(으)ㄹ ᄃᆞᆫ'에서의 'ㄱ/-(으)ㄴ'도 이러한 기능을 이어 받은 것이다.

3-6,ㄱ) 方廣ㅅ 希法ㅅ 及 與ㅌ 論議ㅅㅅㅁㄴ 分別ㅅᄒᆞᄉᆞㅁㅁ矣ㅣ / 方廣과 希法과 및 論議이라고 하는 것들을 分別(하고)하여야 하실 것이다. <瑜伽2,23-3,5>

ㄴ) 增長廣大ㅅㄱ 有ㅌㄱ 所ㅌ 功德ㅣ 證得ㅅᄒᆞᄉᆞㅁ矣ㅣ / 增長廣大한 所有한 功德을 證得(하고)하여야 할 것이다.<瑜伽3,5-,11>

이는 '-ㅁ矣ㅣ/-ㄹ 디다'의 형태로 ㅁ동명사가 수식어로 쓰인 것이다. '矣/디'는 의존명사 'ᄃᆞ'에 계사가 연결된 것이 축약된 것이다. 관념형어미인 '-ㅁ'과 강세의 뜻을 가진 'ᄃᆞ'가 결합되었으므로 當爲나 必然의 뜻을 나타내어 '하여야 한다'로 해석된다.

3-7,ㄱ) 是 [如]ᄒᆞᄉᆞㅇㅣ 名下 [爲] 誓ᄉᆞ 下劣ᄉᆞㄱ 形相ㅣ 受ㅅㅁㅅㅣ 觀察 ᄉᆞㅁㅁㅜㅅᄀᆞᄒᆞᆫ / 이 같은 것을 이름하여 맹세하기를 下劣한 形相을 受하는 것을 觀察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瑜伽16,16-,22>

ㄴ) 不美食ㅣ 得 當願衆生 諸ㄱ 三昧ㅌ 味ㅣ 獲得ㅅㅁ 不ㅅㅁㅜㅅㅁ 莫ㅌㅂㅗ / 不美食을 얻는다면 반드시 願하기를 衆生은 모든 三昧의 맛을 獲得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지이다<華嚴7,14-,17>

ㄷ) 謂ㅅᄉᆞ 非矣ㅐㅣ 二諦ㅐ 一ㅐㅣㅅㅁㅜ / 말할 것이 아니다. 二諦가 一이라고 하는 것을<舊仁15,4>

---

6) 拙稿(1991), 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 21, 檀國大 東洋學硏究所. 참조.

어미 '-ᄑᆞᆨ/ᄅᆞᆼ'은 기원적으로 '-ᄑᆞ(동명사어미) + ᄃᆞ(의존명사) + 영(접속어미)'가 결합된 것이 굳어져 어미로 발달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ᄉᆞᆫᄑᆞᆨ/ᄒᆞᆯᄃᆞᆼ'은 대체로 '하는 것이라고'로 해석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능은 앞으로 좀더 고구해야 될 것이다.

3-8,ㄱ) 幻師ㅣ 幻法ㅣ 見ᄑᆞᆨᄉᆞᆫᄉᆞᆯ/ 幻師가 幻法을 보는 것과 같아 <舊仁15,8-,10>

이는 ᄑᆞ동명사 다음에 '-ᄉᆞᆨᄀᆞᆺ/딧'이 연결된 것이다. 'ᄉᆞᆨᄀᆞᆺ/딧'은 15세기의 'ᄃᆞᆺ'의 先代形이다. 'ᄃᆞᆺ'은 '同'의 의미이어서 '다ᄒᆞ-(如)'와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이니 의존명사 'ᄃᆞ'에 접미사 '-ㅅ'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 'ᄉᆞᆨᄀᆞᆺ/딧'은 동사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

3-9,ㄱ) 有餘依涅槃界ㅣ 依止ᄒᆞᆫᄃᆡ 九法ㅣ 轉ᄒᆞᆫᄑᆞᆨᄆᆞᆷ 涅槃ㅣ 首 爲ᄒᆞᄆᆞᆫ 有ᄀᆞᆺ / 有餘依涅槃界를 依止하여 九法이 轉함에 있어 涅槃을 머리로 삼음이 있으며<瑜伽4,19-5,1>

ㄴ) 出家ᄒᆞᆫᄑᆞᆨᄆᆞᆷ 礙ᄑᆞ 無ᄒᆞᆫᄆᆞᆫ 心ᄒᆞᆫᄃᆞᆫ 解脫ᄒᆞᆫᄑᆞᆨᄋᆞᆫᄃᆞᆯ 得ᄆᆞᆮᄒᆞᆫ / 出家함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어 마음에 解脫함을 얻어지이다.<華嚴3,3-,7>

ㄷ) 法王ㄱ …… 大衆ㅣ 覆蓋ᄒᆞᆫᄇᆡᄅᆞᆯᄑᆞᆨᄆᆞᆷ 量 無ᄉᆞᆨㄱ 光ᄆᆞᆫᄒᆞᆫᄀᆞᆺ / 法王은 …… 大衆을 覆蓋함에 있어 量 없는 빛으로 하시며<舊仁11,8-,9>

ㄹ) 諸ㄱ 行法ᄋᆞᆨ 悉ᄒᆞᆫ 散滅ᄒᆞᆫᄑᆞᆨᄉᆞᆷᄃᆞᆫ 歸ᄒᆞᆫᄑᆞᆨᄋᆞᆫᄃᆞᆯ 觀ᄒᆞᆫᄆᆞᆮᄒᆞᆫ / 모든 行法이 다 散滅하는 데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지이다.<華嚴4,1-4>

이 'ᄒᆞᆫᄑᆞᆨᄆᆞᆷ/ᄒᆞᆯ ᄃᆡ'는 ᄑᆞ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ᄃᆞ'에 처격조사 'ᄋᆡ'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ᄒᆞᆫᄑᆞᆨᄆᆞᆷ/ᄒᆞᆯ ᄃᆡ'는 15세기에는 '호ᄃᆡ'로 되어 前提의 기능을 하는 어미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ᄒᆞᆫᄑᆞᆨᄆᆞᆷ/ᄒᆞᆯ ᄃᆡ'는 처격의 의미가 살아 있어 '하는 데에 있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ㄹ)의 'ᄒᆞᆫᄑᆞᆨᄉᆞᆷᄃᆞᆫᄃᆡᄀᆡ'는 의존명사 'ᄃᆞ'에 처격조사 'ᄋᆞᆨᄃᆡᄀᆡ'가 연결된 것이다. 처격의 'ᄋᆡ'와 'ᄃᆡᄀᆡ'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었음

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ㄕ동명사가 체언수식어로 쓰이는 예를 살펴보았다. 의존명사 'ᄃᆞ'를 수식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ㄕ동명사형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문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4-1,ㄱ) 此 十種ㄴ 生圓滿ᄒᆞ 名ᄒᆞ 修瑜伽處所ㅅᄂᆞᆫㅅ / 이 十種의 生圓滿을 이름하여 修瑜伽處所라고 하는 것이다.<瑜伽3,18-,22>

ㄴ) 是ᄂᆞ 思所成慧 俱ᄉᆞᆨ 光明想ㅋ[之] 所對治ㅅᄂᆞᆫㅅ / 이를 思所成慧를 갖춘 光明想의 所對治라고 하는 것이다.<瑜伽11,21-12,1>

ㄷ) 是故ᄆᆞᆷ [於]彼ㅋ十 厭惡ᄉᆞᄋᆞᄎᆞ 而ᄆᆞᆷ 住ᄉᆞᆫㅅ 不厭惡ᄉᆞᄉᆞᆷ 非ᄋᆞᆺᄒᆡ / 是故로 저에게 厭惡하여서 住하는 것이지 不厭惡하는 것이 아니다. <瑜伽20,16-23>

ㄹ) 又 復 堅固精進ᄂᆞ 發起ᄉᆞᄋᆞ 證得ᄉᆞ [爲欲]ㅅᄉᆞᆫㅅ / 또 堅固精進을 發起하여 證得하고져 하는 것이다.<瑜伽22,10-,16>

ㅁ) 菩薩ㅣ 成佛ᄉᆞᆫ 未ㅣᄉᆞᄒᆞᄐᆞ 時十 菩提ᄅᆞ 以ᄋᆞᄋᆞ 煩惱 爲ᄋᆞᄂᆞᆫㅅᄋᆞ 菩薩ㅣ 成佛ᄉᆞᆫᄃᆞᆨᄀᆞᄒᆞᄐᆞ 時十 煩惱ᄅᆞ 以ᄋᆞ 菩提 爲ᄋᆞᄂᆞᄒᆞᄐᆞᄒᆡ / 菩薩이 成佛하지 않은 때에 菩提로써 煩惱를 삼는 것이지 菩薩이 成佛한 때에는 煩惱로써 (반드시) 菩提를 삼게 되는 것이다.<舊仁15,18-20>

'ㅅᄂᆞᆫㅅ/홀여'는 ㄕ동명사 다음에 종결어미 '-ㅅ/여'가 와서 문장을 종결한 것이다. 명사 다음에는 繫辭가 오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오는 것이 국어의 문법인데 이 석독구결에선 동명사어미 다음에 계사가 없이 직접 종결어미가 오는 特異함을 보여준다. '-ㅅ/여'가 竝列接續助詞로 쓰이는 것도 이 어미의 이러한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瑜伽에 주로 쓰였는데 ㅁ)에선 舊仁에도 쓰인 예를 보여주므로 이 시대 전반에 걸친 문법임을 알 수 있다. ㄷ)과 ㅁ)의 예는 이 어미가 접속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종결어미로 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5-1,ㄱ) 善不善法ㅅ 有无罪ㅅ 廣ㅣ 說尸 乃ᄋᆞ 至ㅣ 諸緣生法ㅅᄂᆞ尸ㄴ / 善不善法과 有无罪와 넓게 말하면 諸緣生法과 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를 <瑜伽2,23-3,5>

ㄴ) 文殊師利菩薩尸ㅓ 問ᄒᆞ 言勿尸 佛子ᄒᆞ 菩薩ㄱ [云]何ᄒᆞᄋᆞ 無過失身語意業ㄴ 得ᄀᆞ / 文殊師利菩薩께 물어 말하시되 佛子야 菩薩은 어떻게 하여야 無過失身語意業을 얻으며<華嚴1,3-10>

ㄷ) 偈ㄴ 以ᄒᆞ 賢首菩薩尸ㅓ 問ᄒᆞ 曰ㄷ尸 我ㄱ 今ᄂᆞㄱ …… 淸淨行ㄴ 說ᄒᆞ口ㄴᄀᆞㅣㅁ / 偈로써 賢首菩薩께 물어 말하시되 나는 이제 이미 ……淸淨行을 說한 것이다.<華嚴8,20-,24>

ㄹ) 偈ㄴ 以ᄒᆞ 答ᄂᆞᄒᆞ 曰勿尸 善勿口ㄱ[哉]ㅔ 仁者ᄉᆞ / 偈로써 答하여 말하시되 훌륭하군요 仁者여<華嚴9,1-,5>

ㅁ) 舍衛國主ㅣㄷ尸 波斯匿王ㅣ 名ᄂᆞᄆᆞ 曰白尸 月光ᄉᆞᄂᆞ白ㄹᄉᆞ今ㄱ …… / 舍衛國主이실 波斯匿王이, 이름으로 말하면 月光이라고 하옵는 분이… … <舊仁2,24-3,3>

ㅂ) 大王ㄱ 復ᄂᆞㄱ 起ᄂᆞᄒᆞ 作禮ᄂᆞ白口 佛ㅓ 白ᄒᆞ 言ㄷ尸…… / 大王은 또한 일어나 作禮하옵고 부처께 사뢰어 이르시기를 …… <舊仁3,22-,23>

ㅅ) 大衆ㄱ …… 謂言ᄂᆞㅏ尸 四無所畏ㅣᄒᆞ …… 法身ㅣᄒᆞᄂᆞㄷㄱ 大覺世尊ㄱ… / 大衆은 …… 謂言하되 四無所畏이고 …… 法身이고 하신 大覺世尊은 … <舊仁2,19-,23>

이 예들은 說, 問言, 問曰, 答曰, 名曰, 白言, 謂言 등 話法動詞에 尸동명사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이 동명사형은 문맥에 따라 '하면', '하기를', '하되'등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15세기의 '닐온'의 경우처럼 '이른 바'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동명사형은 부사적, 내지는 접속어미와 같이 쓰이는데 話法의 前提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동명사형의 본래적인 성격에서 온 표현인지 어떤 조사의 생략에 의한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명사의 不定格的인 용법이 이러한 표현을 낳게 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15세기 국어에는 '닐온', 'ᄀᆞᆯ온'과 같은 -ㄴ동명사형은 있으나 -ㄹ동명사형은 없는데 이 釋讀口訣들에서는 '謂ㄱ/닐온'과 같은 '-ㄱ/(으)ㄴ'동명사형과 함께 이 '-尸/ㄹ'동명사형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동명사형의 사용범위가

넓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5-2,ㄱ) 是 思ノㅁ入し 作ンナㅁ 我ㄱ…… 定自在性ㅗノㅁし 證ノㅎ [應]ヒンㄱリミヒ丨ンミ / 이 思하는 것을 짓기를(짓되) 나는…… 定自在性이라고 하는 것들을 證明해야 하겠구나 하여<瑜伽16,9-,18>

ㄴ) 便ㅁ 自ㅠ 思惟ンナㅁ 我ㄱ 已ミ 心一境性し 證得ンミノㄱリミヒ丨ンミ / 곧 스스로 思惟하되(하기를) 나는 이미 心一境性을 證得한 것이로구나 하여<瑜伽23,15-23>

앞 4-1,ㅅ)의 '謂言ンナㅁ'은 話法動詞에 동명사형 'ンナㅁ/ㅎ결'이 연결된 것인데 위의 예들은 思惟動詞에도 이 동명사형어미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그 전제를 하기 위하여 ㅁ동명사형이 쓰인 것이어서 4-1)의 예와 같은 표현법에서 온 것으로 설명된다.

5-3,ㄱ) 是 [如]ㅊ 精勤ㅋ 如理作意ンㅁ入し 乃ミ 得ㅁ 名下 [爲]出家之想ㅗンカ 及ヒ 沙門相ㅗノオ丨 / 이와 같이 精勤하게 如理作意하는 것을 이름하여 出家之想이라 할 수 있으며, 沙門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瑜伽18,15-19>

ㄴ) 請問し 依ンㄱ入ㅠ 故ノ 昔ㅁ 聞白ㅁ 未リンラヒ丨ノㄱ 甚深 法義し 聞カ / 請問을 依하기 때문에 옛날에 듣자옵지 못하였었구나 하는 甚深法義를 들으며<瑜伽7,2-6>

ㄱ)의 '得ㅁ'은 '시를'로 읽히는 것으로 15세기국어의 '시러'와 같이 可能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得ㅁ 名下/시를 일홈하'는 15세기국어의 '시러 일홈ᄒᆞ야'와 같은 것이어서 '이름할 수 있어'로 해석된다. '得ㅁ'이 '名下'와 함께 쓰였으므로 ㅁ동명사어미를 화법동사의 전제표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여기서는 '名下'의 앞에 쓰이어 그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前提로는 볼 수 없다. 이는 ㅁ동명사형의 특수한 용법을 보여 주는 것인데 '得ㅁ'이 不定格의 동명사형이어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격의 표현이 ㄴ)의 '昔ㅁ'이다. 그러나 昔ㅁ이 부사어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성

이 있지만 '昔/녜'가 국어에서는 명사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昔 다음에 계사 '-ㅣ/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ㄱ)의 得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할 예이다.

ㄷ) [於]一切 法ᄋᆞ+ 自在尸 無不ᄉᆞ尸丁ᄉᆞ尸 而ᄆᆞᆷ 衆生ᄋᆞᆯᄯᅩ 第二 導師ㅣ尸 [爲]ᄉᆞᆫᄃᆞᆫᄒᆞᄂᆞᆯᄯᅩᆫᄃᆡ / 一切法에 自在하지 못함이 없어서 衆生의 第二 導師가 (반드시) 되느니라.<華嚴2,12-17>

'無不ᄉᆞ尸丁ᄉᆞ尸/홀뎡 홀'의 'ᄉᆞ尸/홀'이 尸동명사형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而ᄆᆞᆷ'는 아직 그 독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맥의 해석에서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ᄉᆞ尸/홀' 다음에 '衆生ᄋᆞᆯᄯᅩ' 이하의 句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이들 석독구결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ᄉᆞ尸'은 '-어서'로 해석된다. 이는 이 동명사형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니 결국 이 'ᄉᆞ尸'도 5-3ㄱ)의 동명사형과 같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 되어 같은 문법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여 준다. 이 5-3)의 예들로 볼 때 5-1)과 5-2)에서 尸동명사형이 전제의 뜻으로 쓰인 것은 그것이 話法動詞나 思惟動詞와 결합된 데서 온 것이지만 그 근원은 5-3)과 같이 尸동명사형이 부사어로 쓰이는 데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否定法에 쓰인 尸동명사어미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7]

6-1,ㄱ) 他ㅣ 引ᄉᆞᆫ [於]已ᄋᆞᆯᄯᅩ 信ᄉᆞ [令]ㅣ [爲]ᄉᆞᆫᄉᆞ尸 不多ᄉᆞᄒᆞᆫ / 남을 끌어들여 자기의 것을 믿게 하고자 하지 않으며<瑜伽4,15-19>

ㄴ) 衆生ㅣ 隨ᄀᆞ 住ᄉᆞᆫᄃᆞᄭᅩ 恒ㅣ 捨離尸 不ᄉᆞᆫᄀᆞᆫ / 衆生을 따라 住하여서 항상 捨離하지 않으며<華嚴2,12-17>

ㄱ)에서는 '不多ᄉᆞ-/안ᄃᆞᆯᄒᆞ-'가 '信ᄉᆞ [令]ㅣ [爲]ᄉᆞᆫᄉᆞ尸/信ᄒᆞ이과 홀'의 동

7) 이 시대의 否定法에 대하여는 '拙稿(1977), 國語 否定法의 發達, 「문법연구」 3, 塔出版社'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 尸동명사에 관계된 것만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동안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으므로 보충을 하게 될 것이다.

명사구를 부정한 것이다. 이 釋讀口訣들에선 '不ᄒᆞ/안돌'이 동사를 부정하고 '不矣/안디'가 명사를 부정하여 동사부정법과 명사부정법이 구별되었다. 이 시대는 -ㄕ동명사와 -ㄱ/(으)ㄴ동명사가 있는데 전자는 동사부정법으로 부정하고 후자는 명사부정법으로 부정한다. ㄱ)은 ㄕ동명사의 否定例이다. ㄴ)도 같은 부정법인데 否定辭 '不ㅅ-'는 '不ᄒᆞㅅ-'에서 ᄒᆞ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華嚴에선 -ㄕ동명사에 이어지는 '不ᄒᆞㅅ-'는 모두 ᄒᆞ의 표기를 생략하여 '不ㅅ-'로만 표기하였다. 이 -ㄕ동명사 부정형은 15세기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니ᄒᆞᆱ 아니ᄒᆞ다(金三五,10)'와 '아닗 아니다(六祖上,47)'가 사전에 올라 있다. 전자를 직역하면 '아니함이 아니다.'이고 후자는 '아님이 아니다'로 해석되어 'ㄹ'동명사어미의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예들은 '-ㄕ/ㄹ'동명사어미는 화석으로 가지고 있으나 부정사 '안돌'이나 '안디'는 모두 '아니(ᄒᆞ-)'로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본래 '돌'이나 '디'는 의존명사 'ᄃᆞ'와 어원을 같이하는 접미사로 'ᄃᆞ'의 쓰임이 퇴화되면서 이 문법도 바뀐 것이다. 그리하여 ㄕ동명사어미는 현대어로는 '함(하는 것)'이나 '-임(-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 釋讀口訣의 'ㅅㄕ 不ᄒᆞㅅ-'는 부정법의 발달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常ㅣ 說法ㅅ白ㅁㄕㅁ 無義ㅅㄱ のしㅅㄕ 非ᄒᆞㅅㄴㄷ / 항상 說法하오되 無義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舊仁11,10-,11>

이는 앞에서 -ㄕ 동명사의 부정사로 '不ᄒᆞㅅ-'가 쓰인 것에 대하여 '非ᄒᆞㅅ-/안돌 ᄒᆞ-'가 쓰인 데서 차이가 있다. 不과 非는 한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어에서는 둘 다 '안돌'로 읽히어 같은 動詞否定辭로 쓰였다. 이 '非ᄒᆞㅅ-'는 舊仁의 예인데 이 '非ᄒᆞㅅ-/안돌 ᄒᆞ-'는 이 구결의 -ㄕ동명사 부정의 예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ㄹ) 所對治ㄴ 法ㅣ 能ㄱ 勝三摩地ㄴ 得ㄕ 不ㅎㅅ [令]ㅣᄉᆞ 有ㄴㅣ/ 所對治의 法이 能히 勝三摩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瑜伽13,4-,7>

ㅁ) 證ノ尸 所し [有]4尸 未ハンㄱㅅ 故ノ / 證明할 바를 갖지 아니 하였으므로<瑜伽18,1-,6>

ㄹ)의 '不ハン-'와 ㅁ)의 '未ハン-'는 모두 '안ᄃᆞᆨ ᄒᆞ-'로 읽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不과 未 역시 漢文文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석독구결에선 '안ᄃᆞᆨ'으로 읽히고 -尸동명사를 부정하는 점에서 같은 否定辭의 구실을 한다. 현대어로 해석할 때 '못하다'와 '아니하다'로 구별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데서 온 차이이다.

ㅂ) 昔尸 聞白尸 未リンラヒノㄱ 甚深 法義し 聞ク / 옛날에는 듣지 못하였었구나 하는 甚深 法義를 들으며<瑜伽7,2-8>

ㅅ) 菩薩リ 成佛ン尸 未リンヒヒ 時十 / 菩薩이 成佛하지 아니 한 때에 <舊仁15,18-,20>

여기에 쓰인 '未リン-'는 '아니 ᄒᆞ-'로 읽힌 것으로 추정된다. '안ᄃᆞᆯ' '안ᄃᆞᆨ'에 대하여 새로운 否定法의 출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ㅇ) 當ハ 障导し 作ㅅリ尸 勿ノ千ㄱリミヒ丨ンア矢丨/ 반드시 障导를 作하게 되지 않아야 하겠구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瑜伽9,1-,3>

이는 '-尸 勿ノ'로 나타난 否定法인데 '勿ノ-'는 음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釋讀口訣들의 문법에선 否定辭가 '아니'나 '못'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쓰였는데 勿도 그 중의 하나로 -尸동명사의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ㅈ) 一切 聲門ミ 緣覺ミノ今ラ 動尸 不能リ矢ノ尸 所リ去ナウヒ丨/ 一切聲門과 緣覺과 하는 것들이 동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8,16-18>

이는 -尸 동명사의 부정사로 不能이 쓰인 것이다. '動尸'은 '뮐'로 훈독되어

직역하면 '동요함'이 될 것이지만 부정사 不能에 이어지므로 '동요하지'로 해석된다. 不能 뒤에 이어지는 '-ㅣ矣ㄴㄕ/이디 홀'은 여기 처음 나타나는 형태로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ㅊ) 心ㅋ+ 退轉ㄴㄕ 无ㅋ / 마음에 退轉함이 없어<瑜伽8,12-,19>
ㅋ) 增ㄴㄕ 無ㅁ 亦ㅣ(ㄴ)ㄱ 盡ㄕ 無ㄱ [如]ㅈ / 增함이 없으며 또 다함이 없음과 같이<華嚴14,13-,14>
ㅌ) 佛ㅣ 出世ㄴ白ㄹㄕ 無七ㄷㄱㅌ七 前ㅋ+ / 佛이 出世하음이 없으신 前에<舊仁14,1-,4>

이는 한문의 無에 대응하는 '없다'가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15세기국어에선 '없다'가 부정사의 기능을 보여 주지 않으나 이 석독구결들에선 부정사의 범주에 들어 -ㄕ동명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ㅋ)의 '盡ㄕ 無ㄱ'은 15세기에 '다ᄋᆞᆱ 업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고려시대의 동명사형이 남은 것이 아니라 부정법적 표현이 화석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ㅍ) 諸ㄱ 三昧七 味ㄴ 獲得ㄴㄕ 不ㄴㄕㅜㄴㄕ 莫七ㅌㅗ / 모든 三昧의 맛을 獲得하지 못하기도 하는 이가 없어지이다.<華嚴7,14-,17>

이는 한문의 否定辭 莫에 대응하는 국어의 '없-'이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莫이 '莫七/없-'으로 훈독되면 앞의 無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ㅎ) 間斷ㄴㄕ 无ㄴㄱㅅ故ㄴ / 間斷함이 无하므로<瑜伽7,2-,8>

이 '无ㄴ-'는 음독되는 한자어인데도 '없-'과 마찬가지로 -ㄕ동명사를 지배하는 否定辭로 쓰였다.

아) [於]一切 法ㅋ+ 自在ㄕ 無不ㄴㄕㅜㄴㄕ / 一切 法에 自在함이 無不하기도 하는<華嚴2,12-,17>

無不은 내용상 肯定인데 부정사와 같이 쓰였다. -ᄑᆞ동명사가 통사상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니 이에 준해서 보면 否定과 非否定의 경계는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自在ᄑᆞ'은 '自在ㅅᄑᆞ'에서 'ㅅ/ᄒᆞ-'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否定辭 '不多/안ᄃᆞᆯ', '不ㅅ/안ᄃᆞᆨ', '不矣/안디'의 'ᄃᆞᆯ, ᄃᆞᆨ, 디'는 기원적으로는 同의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 'ᄃᆞ'에서 온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否定辭의 뒤에 오지만 15세기에는 동명사어미 'ᄑᆞ/ㄹ'이 쇠퇴하면서 그 자리로 올라 와서 15세기 국어의 부정법 ' -디(ᄃᆞᆯ) 아니ᄒᆞ-'의 구조로 발달한다. 勿, 莫, 無는 국어에서 반드시 否定辭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부정사 '不/아니'와 같이 '-ᄑᆞ/ㄹ' 동명사를 지배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다음은 종래 알고 있는 중세국어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ᄑᆞ동명사 어미에 대하여 고구해 보기로 한다.

7-1,ㄱ) [是]ㅣ [如]ᄒᆞ 三乘ㄴ 敎ㄴ 開闡ㅅᄀᆞᄒᆞ 廣ㅣ 衆生ㄴ 度ㅣᄀᆞᄑᆞᄀᆞ 量ㅣ 無ㄱ 劫ᄀᆞ十ㅅᄋᆞᄅᆞᄒᆞᄀᆞ / 이와 같이 三乘의 敎를 開闡하여서 널리 衆生을 濟度하는 것이며, 無量한 劫에 하는 것이며<華嚴14,19-22>

ㄴ) 智慧 自在ㅅᄀᆞ 思議ᄑᆞ 不ㅅᄑᆞᄀᆞ 說法ㄴ 言辭 有礙ᄑᆞ 無ᄀᆞ / 智慧가 自在하여 思議하지 못할 것이며, 說法의 言辭가 有礙함이 없으며 <華嚴15,03-,07>

'-ᄀᆞᄑᆞᄀᆞ', 'ㅅᄑᆞᄀᆞ'는 ᄑᆞ가 접속어미 '-ᄀᆞ/며' 앞에 온 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舊仁에서는 다음과 같이 'ㄴ/ㄹ'로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ㄷ) 花ㄱ 須彌山王 如ㅣㅅᄂᆞᄀᆞᄉᆞ 雲 如ㅣㅅᄀᆞ 而ᄆᆞ 下ㅅᄋᆞᄅᆞᄒᆞᄂᆞᄀᆞ / 꽃은 須彌山王 같은 것이니 구름 같이 내리는 것이며<舊仁2,14-,17>

ㄹ) 法王ㄱ…… 心智 寂滅ㅅᄃᆞᄒᆞ 緣 無ㄴㅣ 照ㅅᄃᆞᄋᆞᄂᆞᄀᆞ 人中ᄀᆞㄴ 師子ㄱ 衆ㅋ 爲ᄒᆞᄉᆞ 說ᄋᆞᄒᆞᄃᆞᄀᆞ 大衆ㄱ 歡喜ㅅᄀᆞ 金花ㄴ 散ㅅ白ᄋᆞᄅᆞᄒᆞᄂᆞᄀᆞ 百億萬土ㄱ 六大動ㅅᄋᆞᄅᆞᄒᆞᄂᆞᄀᆞ / 法王은…… 心智가 寂滅하시어 因緣

없이 照하시는 것이며 人中의 師子는 衆을 爲하여 說하시니 大衆은 歡喜하여 金花를 뿌리는 것이며 百億萬土는 六大震動하는 것이며 <舊仁11,9-,12>

이 '-ㅁᄒᆞᄉᆞᆫ가', '-ㅁᄉᆞᆫ가'의 'ᄉᆞ/ㄹ'도 '-ᆫ가/며' 앞에 오는 점에서 ㄱ), ㄴ)의 ㅁ과 같다. 舊仁의 이 '-ᄉᆞᆫ가'는 이제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었는데 이 '-ᄉᆞ'이 '-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우선 舊仁의 '-ᄉᆞᆫ가'가 '-ㅁ/고-'나 '-ᄒᆞ/ᄂᆞ-'의 뒤에 온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華嚴에선 이 '-ㅁ/고-'나 '-ᄒᆞ/ᄂᆞ-'의 뒤에 '-ㅁᆞᆫ가'가 오는 예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예들이 나타난다.

ㅁ) 菩薩ㄱ 右手ᄋᆞᆯ 申 淨光ᄉᆞ 放ᄂᆞᆫᄃᆞᆷ …… 一切 世ᄉᆞ 照ᄒᆞᆯ勿令ᄀᆞᆫ 燈ᄉᆞ 供養ᄉᆞᆫᄒᆞᆫ가 又ᄀᆞᆷ 光明ᄉᆞ 放ᄂᆞᆫᄒᆞᆫᄃᆞᆫ / 菩薩은 右手에서 淨光을 放射하되 …… 一切 世上을 비치실 燈을 供養하는 것이며 또 光明도 당연히 放射한다.<華嚴16,04-,08>

ㅂ) 或ᄀᆞᆷ 有ᄂᆞᆫ 國土ᄅᆞ 法ᄉᆞ 知ᄆᆞ 不ᄂᆞᆫᄆᆞᆫᄋᆞᆺᄉᆞ [於]彼ᄅᆞ申ㄱ 爲ᄒᆞᆫᄃᆞᆫ 妙法藏ᄉᆞ 說ᄆᆞᆫᄒᆞᆫᄀᆞᆫ가 / 或 있다. 國土가 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爲해서는 (분명) 妙法藏을 演說할 것이며<華嚴14,15-,18>

ㅁ)의 'ᄂᆞᆫᄒᆞᆫ가/ᄒᆞ고ᄂᆞ며'는 舊仁의 'ᄂᆞᆫᄒᆞᆫᄉᆞᆫ가/ᄒᆞ고ᄂᆞᆯ며'에서 ᄉᆞ이 빠진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같은 표현으로 보인다. ㅂ)의 '-ᄆᆞᆫᄀᆞᆫ가/고ᄂᆞ리며'는 ᄉᆞ 대신 ᄀᆞ가 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舊仁의 ᄉᆞ이 華嚴의 ㅁ에 대응함을 고려하면 동명사어미 ㅁ과 'ᄀᆞ/리'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서 문제는 풀리게 된다. 즉 '-ㅁᆞᆫ가'와 '-ᄉᆞᆫ가'의 ㅁ과 ᄉᆞ은 '-ᄀᆞᆫ가/리며'의 'ᄀᆞ/리'와 같은 동명사어미인 것이다. 'ᄀᆞ/리'는 동명사어미 'ㄹ'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형태이지만 '-ㅁ'과 같은 기능을 하는 신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명사어미 'ㄹ'과 '리'는 기원적으로는 구별되었을 것이지만 'ㄹ'동명사어미의 기능이 쇠퇴해 가는 이 석독구결의 시대에는 거의 같은 기능을 하였으므로 서로 교체되어 쓰였던 것이다. 이 시대에는 '-ᄀᆞᆫ가'가 우세하게 쓰여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ㅁ가'와 '-ㄴ가'는 사용빈도도 극히 적고 분포도 '-가'의 앞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ㄹ'동명사어미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ㅁ동명사어미 다음에 계사가 없이 가가 직접 연결되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4-1)의 'ᄒᆞᆷᄭᅴ/홀여'에서 동명사어미 ㅁ다음에 계사가 없이 종결어미 '-ᄭᅴ/여'가 오는 예를 확인한 바가 있다. 이 '-ᄭᅴ/여'는 접속어미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가'와 같은 성질의 어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 시대의 釋讀口訣에서 동명사어미 -ㅁ에 접속어미 '-가'가 직접 연결되는 문법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釋讀口訣에선 동명사어미 -ㅁ과 대격조사 ㄴ은 매우 엄격하게 구별되었었다. 그러나 이들이 -가 앞에서 비록 문헌은 다르지만 서로 구별없이 쓰인 것에 대하여 疑訝心을 갖게 한다. 이는 舊仁에서 -가 앞에 쓰이는 동명사어미의 어원을 상실했던 것에 말미암는 것으로 믿어진다. ㄴ과 ㅁ은 15세기에는 'ㄹ'과 'ㅱ'로 표기되어 음가가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발음상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며'의 'ㅁ'음과 같은 자음 앞에 오면 같은 음으로 발음되어 구별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舊仁에선 이것이 동명사어미 '-ㅁ'에서 온 것이라는 문법을 잊었기 때문에 'ㄴ'로 표기한 것으로 믿어진다.

7-2,ㄱ) 二 非矣ㄱᄫᅡᄆᆞᆫᄀᆡ 何ᄯᅴ 得ᄒᆞᄒᆞᆫ 可ᄯᅴᄒᆞᆫᄆᆞᆫᄀᆡᄋᆞᆫᄃᆡ/ 二가 아닌 것이면 어찌 가능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이다.<舊仁15,5-,8>

이 'ᄒᆞᆫᄆᆞᆫ/ᄒᆞ릴고'의 '-ᄆᆞᆫ/ㄹ고'가 疑問法語尾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형태는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흔히 쓰이는 것이 아니다. 주로 '-ㅇᆞᆫ/앗고'고 쓰이고 이 형태는 이것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새로 등장하는 신형의 의문법어미로 보이는데 이 경우 '-ㅁ/고'에 의문의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ㅁ'의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1)과 7-1)의 예가 이를 동명사어미임을 말해 준다. 'ㅁ'을 동명사어미로 볼 때 그 뒤에 종결어미가 직접

을 수 있는가가 문제였는데 4-1)과 7-1)의 예는 이 시대에 그러한 문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ㆄ/ㄹ'을 관형형어미로 보고 '-ㅁ/고'를 의존명사로 보지 않아도 이 의문법어미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7-3,ㄱ) 若ㄷ 能ᄒᆞᆫ [是]ㅣ [如]ᄒᆞᆫ 衆生ᄋᆞᆯ 調ᄋᆞᆼᄀᆞᆮᄒᆞᄀᆞᆫ 入ᄒᆞᆫᄃᆞᆫᄒᆞᄆᆞᆫᄒᆞᄑᆞᄒᆞᆼᄀᆞᆫ 則 量無ㄱ 神通ㄷ 力ᄋᆞᆯ 現ᄒᆞᄆᆞᆫᄒᆞᄑᆞᄒᆞᆼᄀᆞᆫ / 만약 能히 이와 같이 衆生을 調伏하시는 것을 한다면 無量한 神通의 힘을 나타낼 것이며<華嚴13,1-,4>

밑줄친 '-ㅂᄑᆞᄒᆞᆼᄀᆞᆫ'는 유일하게 발견되는 예이다. 이는 7-1,ㅂ)의 '-ㅂᄒᆞᆼᄀᆞᆫ'에서 'ㆄ/ㄹ'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다. 'ᄒᆞ/리'에 동명사어미 '-ㆄ/ㄹ'이 들어 있다면 이 'ㆄ'는 '리'음의 'ㄹ'음을 重複하여 표기한 것이다. 아울러 이 'ㆄ'는 'ᄒᆞ'가 동명사어미 'ㄹ'과 '이'의 결합형임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ㄹ'은 모두 'ㆄ'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동명사어미 '-ㆄ'을 표기했다가 뒤에 '이'음이 와서 '리'가 되니까 'ᄒᆞ'를 또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ㆄᄒᆞ-'의 중복표현은 단순한 음의 중복이 아니라 형태를 염두에 둔 중복표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순한 'ㄹ'음의 중복표기는 고려시대의 順讀口訣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3. ㆄ의 그밖의 용법

이상으로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나오는 動名詞語尾 -ㆄ에 대한 고찰은 마친 셈이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석독구결에선 동명사어미라고 보기 어려운 ㆄ의 용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성격을 밝혀야만 동명사어미 -ㆄ의 성격도 분명해질 것이므로 여기서 그러한 형태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8-1,ㄱ) 如來ㆄ 諸 弟子衆ㅋ [有]ᅀᅡ白ᄂᆞᆫㄱ 所ㄷ 聖法ᄂᆞᆫ… / 如來의 諸 弟子衆의 가진 바의 聖法을… <瑜伽3,18-,22>

ㄴ) 必ㅅ 如來ㄕ 地ㅣ十 到ㅐナオカ / 반드시 如來의 땅에 이를 것이며 <華嚴9,24-10,3>

여기 쓰인 '如來ㄕ'은 문맥상 분명히 속격으로 쓰였다. 즉 '如來의'의 뜻이다. 이 용법은 瑜伽와 華嚴에만 나타나는데 '如來'의 속격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如來ㄕ 弟子ㅐ… / 如來의 弟子가… <瑜伽4,15-,19>
如來ㄕ 諸 弟子衆ㅐ… / 如來의 모든 弟子衆이… <瑜伽20,9-,16>
如來ㄕ 倂美ㅅ勿ㅁㄕ 所… / 如來의 倂美하시올 바… <華嚴10,10-,13>
如來ㄕ 家ㅣ十… / 如來의 집에… <華嚴11,5-,8>
如來ㄕ 體ㅐ… / 如來의 體가… <華嚴11,13-,18>
如來ㄕ 實功德ㄴ… / 如來의 實功德을… <華嚴15,24-16,3>
如來ㄕ 十力ㅣ 無所畏ㅣ… / 如來의 十力과 無所畏와… <華嚴18,24-19,3>
如來ㄕ 自在用ㅐ勿ㄱㄴ… / 如來의 自在用이신 것을… <華嚴18,24-19,3>

이상이 두 자료에 나타난 如來ㄕ의 예들인데 모두 屬格으로 쓰인 것이다. 한편 如來의 속격형태로 예측되는 '如來ㄷ' 또는 '如來ㅋ'의 형태는 두 자료에는 전연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두 문헌에서는 '如來'의 속격 형태로 'ㄷ/ㅅ'이나 'ㅋ/ᄋᆡ,의'가 쓰이지 않고 'ㄕ/ㄹ'이 쓰임을 말한다.[8]

如來 이외에 'ㄕ/ㄹ'을 속격형태로 갖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더 발견된다.

ㄷ) 或ㅅㄱ 梵志ㄕ 諸ㄱ 威儀ㄴ 現ㅁㅣㅎ / 或은 梵志의 모든 威儀를 나타내어<華嚴19,21-24>
ㄹ) 外ㄕ 動ㅅㅣㅁㄕ 所ㅣ 非ㅊㅠ 說四諦 / 外人의 움직이게 할 바 없게 (外人이 변동 못하게) 四諦를 說하며<華嚴20,8-,11>

---

8) 舊仁에는 '如來ㄕ'의 속격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如來ㄷ 三業ㄱ<11,8>'에서 'ㄷ/ㅅ'의 속격형태를 보여 준다. 앞의 2 자료의 예들로 볼 때 이는 新形으로 보인다.

ㄷ)의 梵志는 佛敎修行의 4期 가운데 제1단계에 있는 修行者이므로 尊者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속격형태는 'ㅅ/의,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격형태로 ㅣ이 쓰인 것은 이 차자의 음가가 'ㅅ'음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9] ㄹ)의 '外'는 내용상 外人(他人)을 가리킨다. 이도 梵志와 같은 非尊稱의 有情 體言이다. 역시 그 속격은 'ㅅ/의,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ㅣ/ㄹ'이 속격형태로 쓰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밝히지 못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

ㄱ)~ㄹ)의 ㅣ은 有情體言의 속격으로 쓰인 것이지만 다음의 예는 無情體言의 속격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ㅁ) 若ㄴ 水ㅣ十 入ㅇ쇼ㄱ 時十ㄱ 當願衆生 一切智ㅣ十 入ㅇㅣㅎ 三世ㅣ 等ㅣㄴㄱ入ㄴ 知ㅌ호 / 만약 물에 들어갈 때에는 當然히 願하되 衆生이 一切智에 들어가서 三世의 平等한 것을 알아지이다.<華嚴7,23>

'三世ㅣ 等ㅣㄴㄱ入ㄴ/三世ㄹ 等아 혼 돌'의 ㅣ는 속격이어서 '三世의 平等한 것을' 또는 '三世가 平等한 것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ㅣ는 폭넓게 속격으로 쓰였던 조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음을 'ㅅ'이라고 볼 수 없음도 분명해 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국어에는 'ㄹ', 또는 'ㅭ'이나 'ㅿ' 음으로 표시되는 속격조사가 하나 더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의 예들은 같은 환경에 쓰인 ㅣ이면서도 속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ㅂ) 他 師敎ㅐㄱ 謂ㄱ 所ㄱ 大師ㅣ 鄔波柁耶ㅗ 阿遮利耶ㅗㄴㅣㄹㅋ … 敎授敎誡ㄴㅣㅅㄴ 依ㅣ / 他 師敎인 이른바 大師인 鄔波柁耶와 阿遮利耶와 하는 이들의 … 敎授敎誡하는 것을 依持하여<25,4-,12>

---

9) 속격형태의 ㅣ의 음가가 'ㅅ'이라는 가설은 口訣學會 月例講讀會에서 白斗鉉 교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ㅣ의 속격적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한 견해이지만 ㅣ에 'ㄹ'과 'ㅅ'의 두 대표음을 부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의 '大師ㅣ'은 앞의 예들과 비슷한 환경에 쓰였지만 속격으로 볼 수 없다. '鄔波柁耶'와 '阿遮利耶'는 각각 和尙과 敎授로 번역되는 것으로 大師의 1종을 말하므로 大師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 大師와 동격이어서 體言修飾語인 '大師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大師ㅣㅣ'에서 'ㅣ/이'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에 이러한 '-ㅣㅣ'이 보인다.

ㅅ) 我ㅣㅣ 今ㅅ 月光ㄱ 三寶ㅣ 禮ㅅ白ㅁㅏㅎㄱㅣㅅ / 나인 지금의 月光은 三寶를 禮하옵는 것이다.<舊仁11,8-,9>

이는 舊仁의 예인데 舊仁에는 속격의 ㅣ는 없고 그와 비슷한 '我ㅣㅣ/일'의 예가 있다.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月光王이 자기를 가리킨 말이므로 '我ㅣㅣ 今ㅅ 月光ㄱ'은 '나인 지금의 月光은'으로 해석된다. 이는 속격조사인 ㅣ과 'ㅣㅣ'은 기능이 다른 형태임을 말하여 준다.

다음의 ㅣ도 해석상 異論들이 제기된 것이다.

9-1,ㄱ) [於]佛ㅣ 菩薩ㅣ十 常ㅣ 淨信ㅣ 生ㅅㅂㅗ / 부처와 菩薩에게 항상 淨信을 生하여지이다.<華嚴6,7-,12>

ㄴ) [於]佛ㅣ 菩薩ㅣ十 能ㅈ 恩德ㅣ 知ㅂㅗ / 부처와 菩薩에게 能히 恩德을 (갚을 줄을) 알아지이다.<華嚴6,7-,12>

'菩薩ㅣ十'의 용례는 이밖에도 華嚴에 몇 예가 더 나타난다. 이 '-ㅣ十'를 15세기국어의 '-의'와 같은 것으로 보아 ㅣ를 'ㅅ'음의 표기, '十'를 '긔'음의 표기로 보려는 假說이 제기 되었다.[10] 그러나 이 ㅣ는 菩薩의 말음을 첨기한 'ㄹ'음으로, '十/긔'는 단순한 처격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 예가 나온다.

ㄷ) 我ㄱ 今ㅅㄱ 已(ㅣ) 諸ㄱ 菩薩ㅣ 爲ㅣ 佛ㅊ 往ㅋ十 修勿ㅁㄱㅂㅊ 淸淨行ㅣ 說ㅋㅁㅣㅁㄱㅣㅍ / 나는 이제 이미 모든 菩薩을 爲하여 부처가 已往에 닦은 바의 淸淨行을 說하였다.<華嚴8,20-,24>

---

10) 註 9)에서 제기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證據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菩薩ㅍ 爲ᄉᆞ'의 '爲ᄉᆞ'은 '삼-'으로 읽히어 현대국어의 '위하여'를 뜻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釋讀口訣에서는 'ᄉᆞᄆᆞ/삼'이 '衆ᄋᆞ 爲ᄉᆞᄆᆞ/衆의 삼<舊仁 11,10-,12>', '衆ᄋᆞ 爲ᄉᆞ/衆의 삼<華嚴13,13-,16>에서와 같이 처격 'ᄋᆞ/의'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ㄷ)의 '菩薩ㅍ 爲ᄉᆞ'의 '菩薩ㅍ'은 여격조사인 'ㅓ/긔'가 생략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15세기의 合用竝書의 合用字들을 모두 표기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ㅍㅓ가 '믜'의 표기라면 합용자 'ㅅ'과 'ㄱ'을 모두 표기한 유일한 예가 된다. 당시로서 '믜'의 표기는 'ㅓ'자 하나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菩薩ㅍ 功德聚 亦ㄲ 然ㄷᄋᆞᄂᆞㅣ / 菩薩의 功德 더미도 그러하다. <華嚴14,13-,14>

이 '菩薩ㅍ'의 ㅍ은 菩薩의 말음첨기로도 볼 수 있고 7-1)의 경우와 같이 속격조사로도 볼 수 있다. 속격조사로 보면 ㅍ을 'ㅅ'음의 표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8-1,ㄷ)의 예는 이를 속격조사로 보기 어렵게 한다. 역시 말음첨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ㅍ이 말음첨기이면 그 뒤에 오는 'ㄷ/ㅅ'의 표기는 생략된다.

다음의 예도 ㅍ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주는 것이다.

9-2,ㄱ) 量 無ᄀᆞ 邊ㅍ 無 劫ᄋᆞㅓ / 量 없으며 가 없는 劫에<華嚴9,6-,9>

ㄴ) [是]ㅣ [如]ᄒᆞᆫ 邊ㅍ 無ㄱ 大功德ㄴ / 이와 같이 가 없는 大功德을 <華嚴9,6-9>

ㄷ) 能 邊ㅍ 無ㄱ 法ㄴ 開演ᄉᆞᄒᆞᄐᆞᄀᆞ 若 能 邊ㅍ 無 法ㄴ 開演ᄉᆞᄒᆞㅍㅅㄱ / 能히 가 없는 法을 開演하는 것이며 만약 能히 가 없는 法을 開演하는 것이라면<華嚴11,17-,20>

ㄹ) 大光明ㄴ 放ᄂᆞㄱᄆᆞᆷ 有邊ㅍ 無ㅣᄉᆞᄀᆞ / 大光明을 放射하되 有邊 없이 하며<華嚴15,3-,7>

'邊ㅍ'을 15세기국어의 'ᄀᆞᆺ'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ㅍ는 그 말음 'ㅅ'을 첨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11] 그러나 이 邊ㄕ 다음에는 예외 없이 否定辭 '無/없-'이 온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否定辭 '無/없-' 앞에 오는 ㄕ가 'ㅅ'이 아니고 'ㄹ'이라면 동명사어미일 것이 예측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약하다. 그러나 ㄹ)의 有邊ㄕ는 2자로 된 한자어 用言이므로 ㄕ를 동명사어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는 ㄕ의 앞에 접미사 'ᄂᆞ-'나 'ㅣ'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ㅁ) 說法ㅣ言辭 有礙ㄕ 無ᄉᆞᆫ / 說法의 言辭가 有礙함(막힘)이 없으며
<華嚴15,5>

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ㄱ)~ㄷ)의 邊ㄕ도 용언으로 쓰이어 그 동명사어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邊의 훈에 'ㄹ'음을 가진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봄직도 한 것이다. 口訣學會 月例 講讀會에선 '언저리'의 '언절'을 가정해 보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ㄕ가 末音添記로 쓰인 것은 다음의 예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9-3,ㄱ) [是]ㅣ [如]ᄒᆞᄂᆞᆫ ᄀᆞᆫ切ㄕ十 皆ᄂᆞᆫ 自在ᄒᆞᄋᆞᆫᄃᆞᆯᄀᆞᆯᄉᆡᆨᄀᆞ / 이와 같은 ᄀᆞᆫ切 속에 모두 自在하도록 하는 것은<華嚴15,3-,7>

'ᄀᆞᆫ切ㄕ十'의 ᄀᆞᆫ切은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方便, 神通' 등을 총괄하는 말이므로 有情物 體言이 아니다. 따라서 'ㄕ十'는 여격조사가 될 수 없으므로 ㄕ의 음은 'ㅅ'이 아닌 'ㄹ'로 보아야 한다. ㄕ의 음을 'ㄹ'로 보면 이는 ᄀᆞᆫ切의 末音을 添記한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ㄴ) 菩薩ᄀᆞ 十ㄕ 種行ᄒᆞ 行ᄒᆞᄉᆞᆸ / 菩薩은 열 種行을 行하고
<華嚴18,15-,19>

---

11) 註 8), 9) 참조.

'十ㆆ'의 ㆆ도 'ㄹ'음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十의 훈 '열'의 말음을 첨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상에서 속격조사로 쓰이는 ㆆ과 말음첨기로 쓰이는 ㆆ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ㆆ이 'ㅅ'음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있어 왔으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ㄹ'음의 표기임이 확인된다.

4. 結 語

이제까지 우리는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자주 쓰인 ㆆ의 용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기능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것이 동명사어미와 속격조사로 쓰인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간혹 末音添記로 쓰인 예가 있어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가 안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1. ㆆ동명사에는 대격, 속격, 처격, 공동격(접속)조사와 보조조사 'ㄱ/(으)ㄴ'과 'ㄲ/도'가 연결된 예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ㆆ동명사에 붙는 조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 동명사어미가 쇠퇴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음을 말하여 준다.

2. ㆆ동명사에 연결될 격조사는 생략되는 예가 많다. 그리하여 그 격이 분명하지 않은 不定格의 예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ㆆ동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문법이 발달하였다. 이 현상은 話法動詞, 思惟動詞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일반 동사를 副詞化하는 경우도 있다.

3. ㆆ동명사형은 체언을 수식한다. 이것은 체언이 체언을 수식하는 국어의 문법구조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이 ㆆ동명사어미가 관형형어미로 발달하는 길을 만든 것이지만 이 석독구결들에선 동명사의 체언수식구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다. 이 구조에서 ㆆ동명사가 의존명사 'ㅅ(の)/ᄃᆞ'를 수식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들은 후대의 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문법적 표현 양식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ㆆ동명사어미 뒤에 語末語尾가 繫辭의 媒介 없이 직접 연결되는 문법

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ㅗ(ㅅ)/여', '-ᄀᆞᆷ/며', '-ㅁ/고' 등의 어미가 그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예가 확인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이들 語尾가 관형형어미 뒤에 이어지는 의존명사가 아님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舊仁의 '-ㅁᄇᆞᆫᄀᆞᆷ/고ᄂᆞᆯ며', '-ㅁᄂᆞᆫᄀᆞᆷ/골며', 華嚴의 '-ᄆᆞᄅᆞᆷᄀᆞᆷ/올며', 'ᄂᆞᆯᄀᆞᆷ/홀며' 등의 난해한 '-ㄴ/ㄹ-'과 '-ᄅᆞ-'의 문법도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믿어진다.

5. ᄅᆞ동명사어미는 否定法의 被否定辭의 어미로 쓰였다. 否定辭는 '不ᄒᆞᄂᆞ-/안돌ᄒᆞ-', '非ᄒᆞᄂᆞ-/안돌 ᄒᆞ-', '不ㅎᄂᆞ-/안딕 ᄒᆞ-', '未ㅎᄂᆞ-/안딕 ᄒᆞ-', '未ᄋᆡᄂᆞ-/아니 ᄒᆞ-', '勿ᄂᆞ-/勿ᄒᆞ-', '不能', '無/없-', '莫ᄒᆞ-/없-', '无ᄂᆞ-/无ᄒᆞ-', '無不' 등이다. 이 가운데 '不ᄒᆞᄂᆞ-/안돌ᄒᆞ-', '非ᄒᆞᄂᆞ-/안돌 ᄒᆞ-'는 動詞文 부정사로 쓰인 것이지만 그밖의 것은 동사문과 명사문의 구별 없이 사용된 것이다.

6. ᄅᆞ은 속격조사로도 쓰였다. 如來의 속격에 주로 쓰였으나 有情物體言, 無情物體言의 구별이 없이 사용된 예들이 나온다. 華嚴과 瑜伽에만 나타나고 舊仁에는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한 형태의 속격조사이다.

7. ᄅᆞ은 末音添記字로도 사용되었다. 菩薩ᄅᆞ十, 菩薩ᄅᆞ, 邊ᄅᆞ, 一切ᄅᆞ十, 十ᄅᆞ의 ᄅᆞ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ᄅᆞ이 동명사어미와 속격조사로 쓰인 것이 문법적 기능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15세기국어에 없는 표현과 용법들이 나타나서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남김없이 다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실만 확인하여도 우리는 이 시대의 국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ᄅᆞ과 또 다른 동명사어미 '-ㄱ/(으)ㄴ'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이 시대의 동명사어미의 전반이 정리될 수 있다. 또 ᄅᆞ동명사어미는 '이'음을 가진 형태와 결합하여 '-ᄒᆞ/리-', '-ᄉᆞ/리-'의 형태를 낳았다. 이들의 기능과 상호간의 차이가 정확히 구명되어야 동명사어미로서의 '-ᄅᆞ/ㄹ'의 기능과 의미도 분명해질 것이다. -ᄅᆞ의 속격적 기능은 특이한 것이다. 이들이 다른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후대의 화석들도 확인할 수 있는지 등도 문제로 남는다.